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보호 앞장선다

도원천 일대 가축분뇨 배출시설·개인하수시설 등 집중 점검

자체 점검반 편성... 행정지도 강화·폐기물 수거 등 지속 관리

정읍시가 지역 상수원인 옥정호(도원천) 보호 관리에 적극 나선다.

정읍시는 옥정호 상수원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원천 주변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도원천 일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 156개소와 개인하수처리시설 27개소, 가축분뇨재활용시설 7개소이다.

시는 무허가 시설 설치·운영과 축사 불법 증설·처리시설 용량 적정 사용, 악취 저감 대책,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기

타 시설 기준 준수와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그 결과를 토대로 미사육 가축분뇨배출시설 10개소는 폐쇄처리했다.

또 퇴비사(퇴비를 만들기 위한 헛간)가 미흡한 11개소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

이후에도 문제 농장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도원천 주변을 수시로 점검해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 도원천 오염을 최소화하고 향후 영농 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시 공무원들이 옥정호 주변에서 쓰레기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관계자는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악취 발생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수역 수질 개선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주민참여사업에 '화선장터' 선정

도시재생 방안 모색 등

익산시는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공모사업에 '화선장터' 팀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추진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 과정에서 지역의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팀을 이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된다.

화선장터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보존하고 활용해 나가려는 순수 주민 동아리다.

이들은 익산시 남부시장 인근 대교농장 터에 있었던 옛 장터의 명칭인 화선장터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4·4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와 지역 역사 해설판 설치 등에 앞장서 왔다.

이 팀은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보는 집중 검토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완성했다.

시는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을 지원함은 물론 각 분야 전문가 풀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을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 협의해 온 과정을 사업계획서에 담아낸 결과가 수년전부터 착실히 준비해온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며 “이런 주민들과의 활동을 통해 진행된 사업을 기반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반영, 단위사업화, 공모사업 추진 등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공모에서 전국 33개 팀이 최종 선정됐으며 전북 지역에서는 익산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익산=유정영기자 yjy@



'전국 시니어 춘향선발대회' 대상에 심상량씨

우리나라 최고의 어르신 전문미인을 선발하는 '제3회 전국 시니어 춘향선발대회'에서 심상량(경기·72·가운데)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전국 시니어 춘향선발대회는 60세 이상 여성 가운데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삶에 감동적 이야기가 있는 어르신을 선발하는 대회다.

새로운 노년 문화를 주도하는 노인상을 정립하기 위해 춘향제 행사의 하나로 치러지고 있다. 금상은 임영희(68)씨, 은상은 김숙자(72)씨, 동상은 김광희(69)씨, 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상은 윤임준(68)씨에게 돌아갔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gnju.co.kr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청소년박람회'

24일부터 이틀간 개최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오는 24~26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청소년 정책 주장대회와 청소년 모의 선거 등 청소년 주도로 열리는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군산 지역 청소년들이 개막식과 폐막식 사회를 맡고 군산 시민 7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선다.

개막식에서는 가솔 및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와 자립을 위해 헌신한 김선옥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대표,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다양화에 기여한 흥원용 인천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국민훈장을 받는다.

박람회에는 미래존과 진로존, 행복존,

청의존, 안전존 5개 주제관이 마련되며 총 170여개 부스가 운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미래 핵심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장래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멘토특강 프로그램에는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 흥병희 서울대 화학과 교수, 스피드스케이팅 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돌발해충 부화기 맞아

농경지·산림 집중 방제

전북 농기원, 내달 5일 까지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17일 갈색날개매미충을 비롯한 돌발해충의 부화기를 맞아 시·군, 서부지방산림청 등과 농경지와 산림을 집중적으로 방제한다고 밝혔다.

갈색날개매미충은 복숭아, 사과, 블루베리 등의 줄기나 잎의 양분을 빨아먹어 피해를 주고 심하면 고사시킨다. 갈색날개매미충은 2010년 충남 공주에서 첫 발견 후 국내에서는 2014년 154ha, 2017년 687ha의 산림에서 서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10일 첫 부화가 관찰돼 21일부터 6월 5일까지를 방제 적기로 정했다.

농업기술원은 산림과 농경지에서 동시에 방제가 효과가 크다고 판단,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갈색날개매미충은 부화 초기에 방제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는다”며 “평야 지역은 오는 21일부터, 산간지역은 오는 28일부터 지자체와 공동방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기자 yjy@kwangju.co.kr



멸종위기 '백양터부살이' 내장산 백암 서식

70년만에 자생지 발견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지구에서 절멸된 줄 알았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백양터부살이'가 70년 만에 다시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는 최근 이뤄진 내장산 백암지구 멸종위기 야생식물 조사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백양터부살이' 신규 자생지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백양터부살이(Orobancha filicicola Nakai)는 해발 100m 저지대 하천 제방 등지에서 서식하는 열당과(科)의 초종 등숙(屬) 식물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자생지 면적은 1100㎡이다.

썩에 기생하는 식물인 백양터부살이는 지난 1928년 전남 장성 백양사 지역에서 일본 식물학자 나카이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후 백양터부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만 이후 70년간 서식지가 발견되지 않아 '내장산 백암지구'에서는 절멸된 것으로 인식돼 왔다.

2003년 백암지구와 멀리 떨어진 내장산국립공원 전북 정읍지역에서 서식지가 재발견된 이후 2012년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백양터부살이는 한반도에만 서식하는 한국 특산식물이자 희귀식물로 제주도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서도 일부 자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고창군은 선운산도립공원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창군은 나눔길 조성을 위해 3억 8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돼 산림복지진흥원의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녹색자금(복권기금)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에 다니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은 교통약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으로 선운산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2)220-0551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복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오피스텔 "급매"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8층, 33평, 코너
- 전망좋은, 즉시 입주
- 내부 시설 완료, 사무실전용
- 보 5백만원에 월50만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 급매 - 7200만원

문의.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6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